Equity

Compliance Noti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Analyst 이철현 lch2678@hanafn.com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Global Quant

미국 증시 4분기 실적, 높은 어닝서프라이즈 가능성

S&P 500의 2025년 4분기 EPS YoY 성장률은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15% 기대

미국 증시의 2025년 4분기 실적 시즌이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S&P 500의 약 12% 기업만이 실적을 발표했고 이번주부터 3주 간 절반 이상의 기업이 실적을 발표한다. 발표된 기업들은 EPS는 컨센서스를 평균 +9.1%, 매출액은 +1.2% 상회하며 좋은 흐름을 이어 나가고 있다. 현재 S&P 500 지수의 4분기 EPS의 YoY 성장률 컨센서스는 약 +8.2%이다.

2025년 미국 증시는 트럼프 행정부의 해방의 날 관세 충격으로 주가와 이익 추정치가 같이 하락했고, 주가가 반등하며 이익 추정치도 재차 상향 조정되었다. 그러나, 연중 낮아진 실적 기대감은 이어지는 실적 발표에서 어닝서프라이즈의 주요한 촉매가 되었다. 따라서, 이번 실적 발표에서도 S&P 500의 4분기 EPS 성장률로 약 15%의 서프라이즈를 기대한다.

4분기 실적 시즌 어닝서프라이즈 경향 확인, 종목 선택에 유리한 시기

미국 증시의 분기 EPS 추정치는 역사적으로 해당 분기중에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 분기 초 셀사이드의 실적 및 비용 전망이 낙관적이고, 어닝서프라이즈를 유도하고 싶은 경영진은 대체로 보수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6년부터 10년간 40개 분기 EPS 추정치의 해당 분기 리비전을 살펴보면 평균 -2.31% 하락했다. 그러나 2025년 3분기와 4분기 EPS 컨센서스는 해당 분기에 각각 +0.1%, +1.5% 상향 조정되었고, 이를 4분기 실적 서프라이즈의 강한 시그널로 판단한다.

하루 최대 수십 종목이 실적을 발표하는 실적 시즌에는 주가 변동성이 높아지며 주식 간의 수익률 차이가 커지게 되고, 이 시기를 종목 선택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 S&P 500 종목들의 1일 수익률 분산을 지수화한 Dispersion Index를 통해 실적 발표 기업의 수가 많을수록 일관되게 커지는 경향을 확인했다. 이번 실적 발표 예정 기업의 수가 가장 많은 날은 2월 4과 5일로 양일 각각 39개 기업이다.

연초 강세 업종 어닝서프라이즈 가능성이 높은 종목군 선별, IT 업종의 반등 기대

YTD 기준, S&P 500을 크게 아웃퍼폼한 업종은 에너지, 소재, 필수소비재, 산업재 순으로, 이들은 지수 내의 낮은 영향력에도 IT의 부진을 상쇄하며 S&P 500의 보합 성과에 기여했다. 위 강세 업종에서 1) 3분기 실적 호조 및 이에 대한 주가반응과 2) 실적 발표의 가장 좋은 시그널인 곧 발표할 분기 실적 추정치가 상향된 종목을 선별해 제시한다.

4분기 S&P 500의 이익 성장은 성장률이 높은 IT 업종이 주도할 것으로, 이는 2026년 1분기 실적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또한, 밸류에이션 조정 중인 IT는 이번 시즌에 이익과 마진에서 컨센서스를 상회하며 반등을 모색할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IT의 P/E는 25.6배로 지난 5년 간의 평균인 25.7배에 근접해 중기 평균 수준에 도달한 상태이다.

1. 좋은 흐름으로 시작하는 미국 증시의 실적 시즌

1) 미국 증시 2025년 4분기 실적, YoY +15%의 EPS 성장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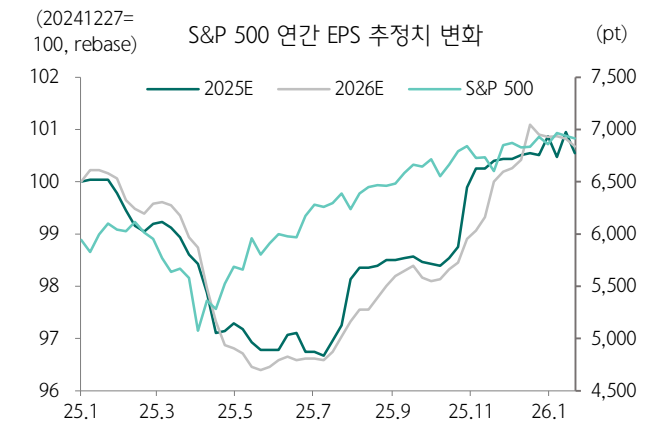
31개 기업 실적 발표, 평균 9.1% EPS 컨센서스 상회

미국 증시의 2025년 4분기 실적 시즌이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S&P 500의 약 12%에 해당하는 62개 기업만이 실적을 발표했고 이번주부터 3주 간 절반 이상의 기업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된 기업들을 보면 EPS는 컨센서스를 평균 +9.1% 상회했고, 매출액도 +1.2% 상회하며 좋은 흐름을 이어 나가고 있다. 현재 S&P 500 지수의 4분기 EPS 컨센서스는 71달러로, 이는 약 +8.2%의 YoY 이익 성장을 의미한다.

2025년 미국 증시는 트럼프 행정부의 4월 해방의 날 관세 충격으로 주가와 이익 추정치가 같이 하락했다. 주가에 후행하는 이익 추정치의 특성 상 EPS 컨센서스는 하락하는 S&P 500과 같이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되었지만, 이후 증시 반등과 함께 상향 조정되는 비슷한 흐름을 이어갔다. 결국 S&P 500의 2025년 EPS 리비전(이익추정치 수정)은 보합 수준에 머물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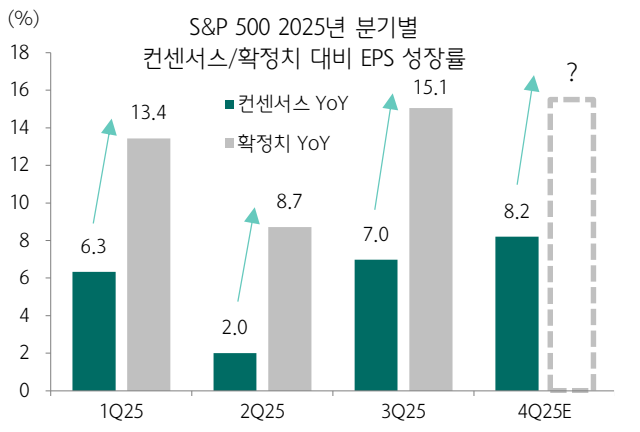
하지만, 연중 낮아진 S&P 500의 실적 기대감은 이어지는 실적 발표에서 어닝서프라이즈의 주요한 촉매가 되었고, 매 분기 컨센서스를 뛰어넘은 이익 성장률을 달성했다. 따라서, 이번 4분기 실적 발표에서도 현재 이익 성장 추정치인 YoY +8.2%를 넘는 성장률이 기대되며, 2025년 3개 분기의 컨센서스 상회 수치를 감안한 4분기 실적의 컨센서스 상회율은 약 15%로 예상한다.

도표 1. 주가와 비슷하게 하락 후 반등 흐름을 이어간 EPS 추정치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도표 2. 2025년 매 분기 큰 폭의 어닝서프라이즈 달성, 4분기도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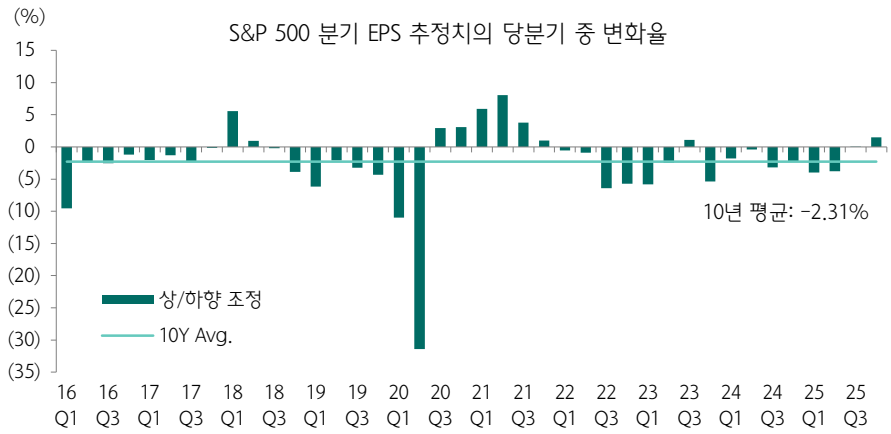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하락 경향의 분기 EPS 리비전 2025년 3, 4분기는 상향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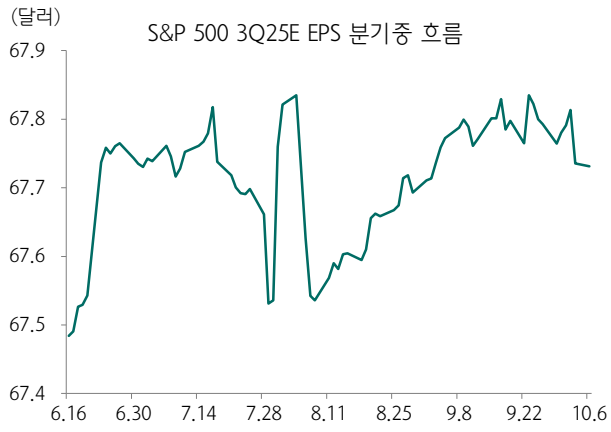
미국 증시의 분기 EPS 추정치는 역사적으로 해당 분기중에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 분기 초 셀사이드의 전망이 매출과 실적은 낙관적이고 마진과 비용은 느슨하기 때문이다. 또한, 대체로 보수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하는 경영진은 호재는 뒤로 미루고 악재는 분기 중에 분산시켜 어닝서프라이즈를 유도한다. 실제로 2016년부터 10년간 S&P 500의 40개 분기 EPS 추정치의 해당 분기 리비전을 살펴보면 평균 -2.31% 하락했다. 그러나 이런 경향과는 반대로 2025년 3분기와 4분기 EPS 컨센서스는 해당 분기에 각각 +0.1%, +1.5% 상향 조정되었다. 그 결과 실제 S&P 500의 3분기 EPS는 추정치 대비 +8.1%p 서프라이즈를 달성했고, 이번 4분기 실적발표도 비슷한 수준의 컨센서스 상회를 기대하고 있다.

도표 3. 분기 중 분기 EPS는 대체로 하향 조정되는 경향이 있지만, 2025년 3, 4분기는 상향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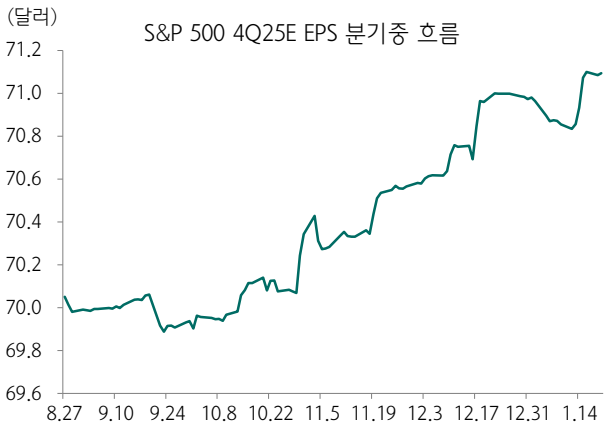
주: 2016~2025년 40개 분기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도표 4. 3분기 EPS는 분기 중(6월 30일 ~ 9월 30일) 소폭 상향 조정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도표 5. 4분기 EPS는 분기 중(9월 30일 ~ 12월 31일) 대폭 상향 조정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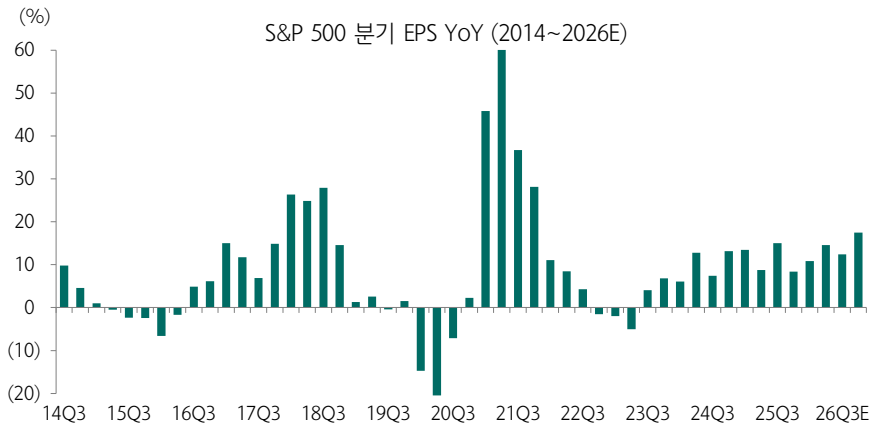
2026년 이익 흐름 또한 호조 예상

이번 4분기 실적 발표는 2026년 견조한 이익 컨센서스의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중간 단계라는 판단이다. 중간 선거를 앞둔 2026년 미국 증시는 견조한 경기 여건과 이익 성장률에 지지될 전망이다.

하지만, 2026년의 1월도 끝나지 않은 현재 수많은 트럼프 행정부 발 정치적/지정학적 이벤트들이 증시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 연중 내내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이러한 굴곡들이 증시 변동성을 확대시킬 것에 대한 우려는 기정 사실과도 같다. 또한, 현재 증시를 압박하는 AI 버블 논란과 수익화 우려 역시 지속적인 하방 위험으로 상존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경기의 양호한 매크로 환경 및 각종 부양책과 이에 따른 경제 성장을 감안할 때, 2026년 미국 증시는 이익 성장에 따라 지속적으로 우상향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

도표 6. S&P 500의 이익 흐름은 2026년에도 양호할 것으로 예상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2) 실적 발표 시즌은 종목 선택에 유리한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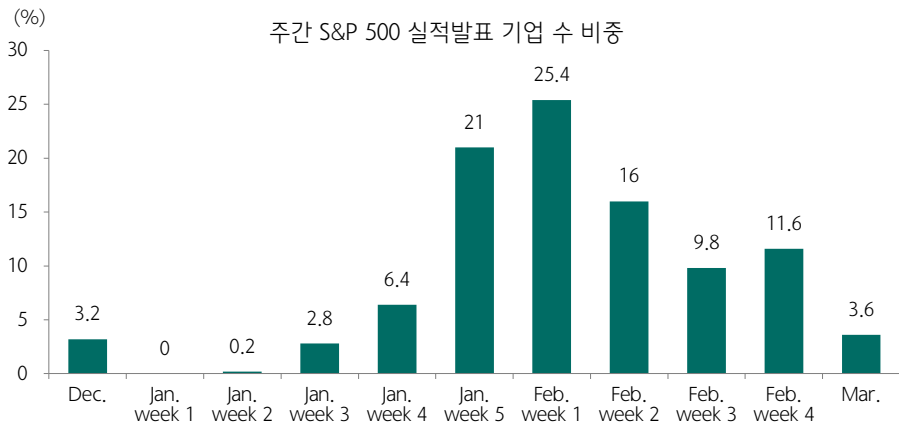
많은 기업이 실적을 발표한 날 일수록 주가 차별화 심화

S&P 500의 약 60%를 넘는 대부분의 기업이 이번주부터 3주간 실적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기간에는 하루 최대 수십 종목이 실적을 발표하고, 이는 주가의 변동성을 키우는 동시에 주식 간의 수익률 차이를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많은 기업이 실적을 발표하는 날은 실적 발표 기업뿐만 아니라 실적을 발표하지 않는 기업까지도 종목 간 수익률의 차이가 커지게 되고, 이로 인해 주가 수익률의 분산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가정에서 S&P 500 내 종목들의 1일 수익률 분산을 지수화한 Dispersion Index를 일간 실적 발표 기업의 수로 구간을 나누어 분석했다. 그 결과 실제로 더 많은 기업이 실적을 발표한 날 일수록 Dispersion Index도 일관되게 커지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실적 발표를 진행하지 않는 기업들이라도 당일 실적 발표 기업의 수가 많을 경우 주가에 영향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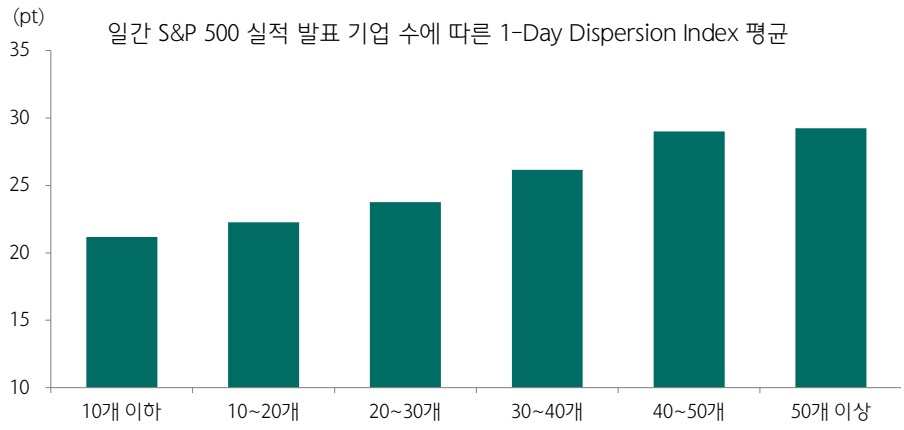
따라서, 실적 시즌은 주가 차별화의 특성을 이용하여 평소보다 종목 선택에서 유리한 고지를 누릴 수 있어 이를 잘 활용해 우호적인 포지셔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번 실적 발표 예정 기업의 수가 가장 많은 날짜는 2월 4과 5일로 양일 각각 39개 기업이다.

도표 7. 1월 5번째 ~ 2월 2번째 주 사이에 많은 기업의 실적 발표가 집중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도표 8. 실적 발표 기업 수가 많을수록 높은 종목간 차별화가 높아 종목 선택에 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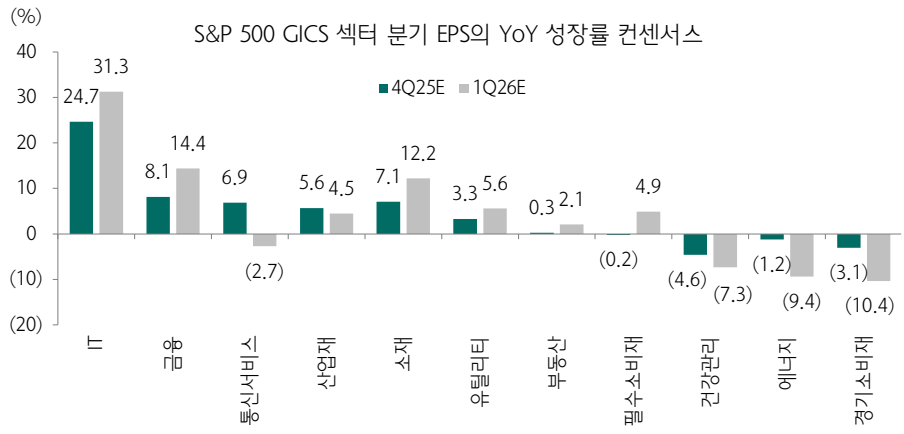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3) IT 업종 밸류에이션은 중기 평균 도달, 이번 실적 발표를 계기로 하방 지지 기대

IT 업종이 증익을 주도하지만 밸류에이션 조정 진행 중

4분기 실적을 업종별로 확인해보면 S&P 500의 이익 성장은 주로 IT 업종이 주도할 것이며, 이는 2026년 1분기 실적에서도 이어지는 추세이다. 현재 IT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조정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는 보합세인 업종지수의 흐름과는 괴리가 느껴지는 지점으로, 현재 IT 업종지수는 10월 말로부터 약 -6% 하락했으나, 밸류에이션(S&P 500 P/E -2.8% 하락, 지수는 보합 수준)은 P/E 기준 약 -15% 하락했다. IT의 세부 산업을 살펴보면 소프트웨어 산업이 가장 부진함과 동시에, IT 하락률은 현재도 주가가 고점 근처인 소재, 산업재, 에너지, 통신서비스, 필수소비재 업종과 비교된다.

도표 9. IT 업종의 높은 이익 성장은 다음 분기인 2026년 1분기까지도 이어지는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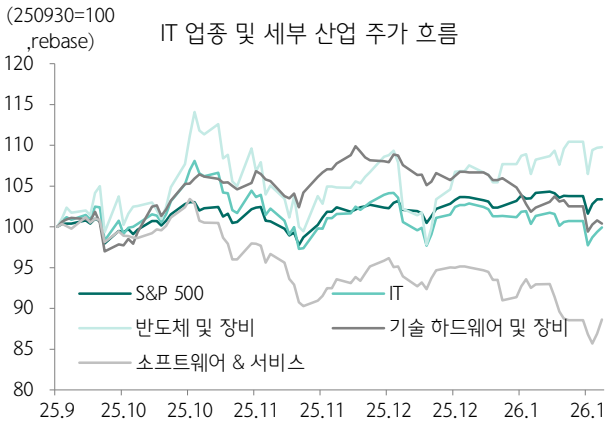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도표 10. S&P 500 섹터별 2025년 4분기 실적 성장률 컨센서스

업종	EPS		매출액	
	YoY (%)	QoQ (%)	YoY (%)	QoQ (%)
IT	24.7	14.8	18.8	12.4
금융	8.1	-2.8	8.7	1.0
통신서비스	6.9	-2.6	8.8	8.2
산업재	5.6	-2.5	7.1	0.6
소재	7.1	-8.3	5.8	2.3
유틸리티	3.3	-32.5	3.9	-12.0
부동산	0.3	1.1	6.0	3.7
필수소비재	-0.2	-6.6	-2.3	1.1
건강관리	-4.6	-13.3	9.0	1.0
에너지	-1.2	-9.2	-4.6	-6.4
경기소비재	-3.1	-16.0	3.1	2.7
S&P 500	8.2	-2.2	**6.5**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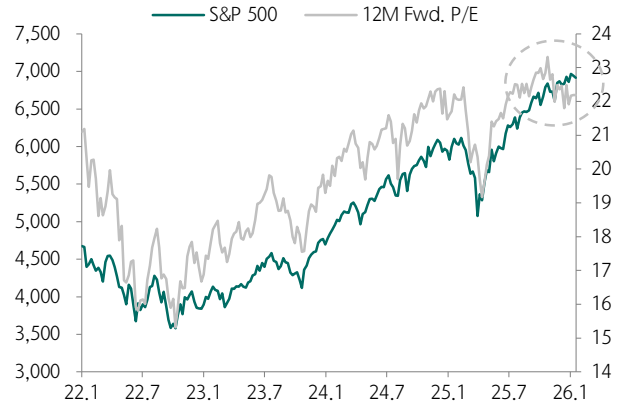
주: 부동산 업종은 EPS 대신 FFO 사용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도표 11. 최근 4개월 IT 업종 성과는 보합, 소프트웨어 산업 부진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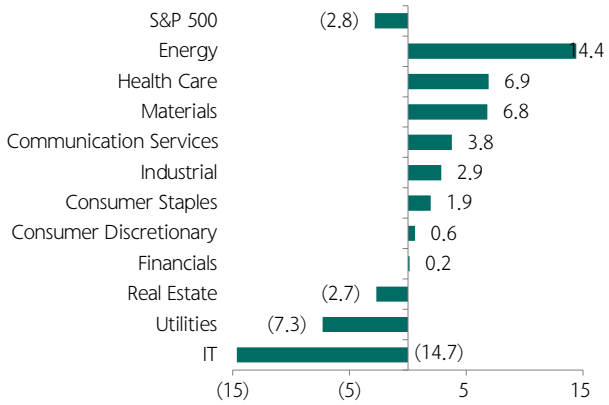
자료: LSEG Datastream, 하나증권

도표 12. 최근 S&P 500 상승 속도 둔화는 밸류에이션 조정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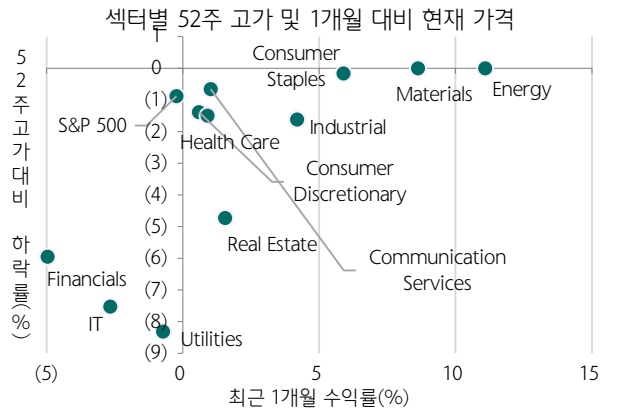
자료: LSEG Datastream, 하나증권

도표 13. S&P 500 10월 말 밸류에이션 고점 대비 P/E 변화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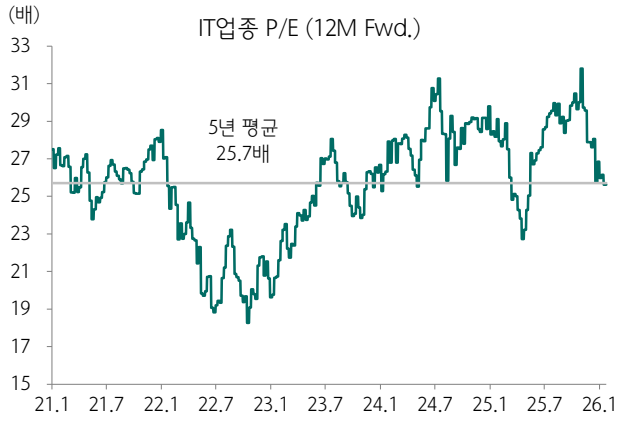
자료: LSEG Datastream, 하나증권

도표 14. IT는 고점 대비 부진, 고점에 근접한 여타 업종과 비교



자료: LSEG Datastream, 하나증권

도표 15. 중기 평균 수준에 도달한 IT 업종 P/E 밸류에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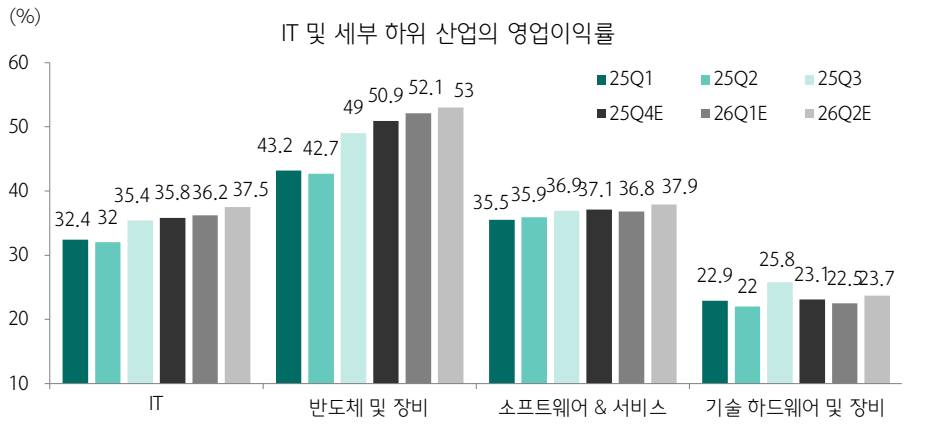
자료: LSEG Datastream, 하나증권

IT 밸류에이션은 이번 실적 시즌 마진을 재확인하며 지지될 것

다만, IT 조정은 AI 버블 우려로 증시 전반의 투자 심리가 차분해진 가운데 그간 부진했던 업종과의 키맞추기에 따른 기간 조정이라는 판단이다. 이는 전반적으로 실적 서프라이즈 확률이 높은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 높은 수준의 이익 성장과 마진을 재확인하며 하방이 지지되고, 주가 반등을 모색하는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

한편 IT 업종의 영업이익률은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업종 내 시가총액 비중이 가장 크고 영업이익률의 수준도 가장 높은 반도체 산업의 전망이 매우 밝다. 마진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는 밸류에이션은 이번 실적 발표에서 이익과 함께 마진 또한 컨센서스를 상회하며 저점을 확인할 가능성이 높다. 참고로 현재 IT의 P/E는 25.6배로 지난 5년 간의 평균인 25.7배에 근접해 중기 평균 수준에 도달한 상태다.

도표 16. 견조한 IT 마진은 밸류에이션 하방을 지지하는 요인이며, 실적 발표를 계기로 주가 반등 모색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2. 연초 강세 업종과 컨센서스 상회 기대의 조합

1) 산업재, 필수소비재, 에너지, 소재 업종이 S&P 500의 YTD 성과 보합에 기여

S&P 500은 YTD 보합 시현 업종 차별화 명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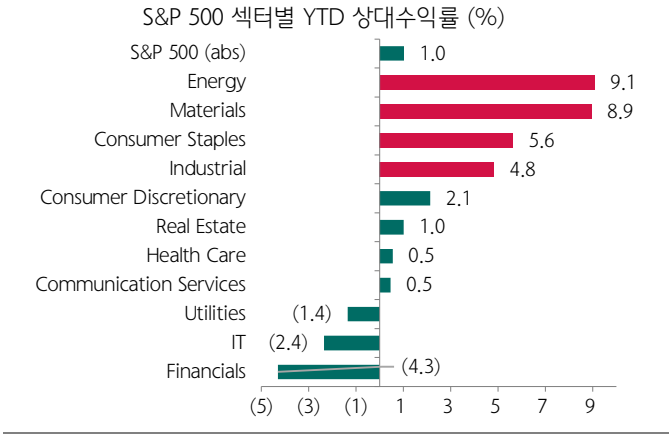
지나간 2025년보다 2026년을 바라보며 YTD 연초 성과가 높았던 업종은 에너지, 소재, 필수소비재, 산업재 순으로 이들은 S&P 500을 크게 아웃퍼폼했다. 또한, 이들 업종은 S&P 500의 YTD 수익률에도 크게 기여해, 지수 내 시가총액 비중이 높지 않음에도 IT 업종의 성과 부진을 상쇄하며 S&P 500을 보합 수준으로 이끌었다.

소재는 지정학적 리스크 및 글로벌 금리 하방 지지에 따른 금, 은, 구리 등의 원자재 랠리에 직접적인 수혜를 얻고 있으며, 산업재는 군비 증강, AI 인프라 개발 등 중장기 트렌드의 연장선에서 여전히 이익과 밸류에이션 업사이드가 강하다. 동시에 이 두 업종은 IT 다음으로 2026년 이익 성장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업종이다.

필수소비재는 이익 모멘텀이 강한 업종은 아니나, 2026년의 시작과 함께 발생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경기방어주의 성과를 견인함과 동시에 미국 소비자들의 재정적 스트레스 부각되며 업종 성과를 끌어올렸다. 미국인의 높은 생활비 및 의료비 그리고 점차 불안정해지는 고용환경이 미국 소비 경기에 부정적일 것으로 예상되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따른 지지율 하락의 대책으로 신용카드 이자율 제한, 기관투자자의 단독주택 매입 금지 등을 언급한 바가 있다. 마찬가지로 미국 민주당은 올해 중간 선거의 주요 아젠다로 '감당 가능한 생활비(affordability)'를 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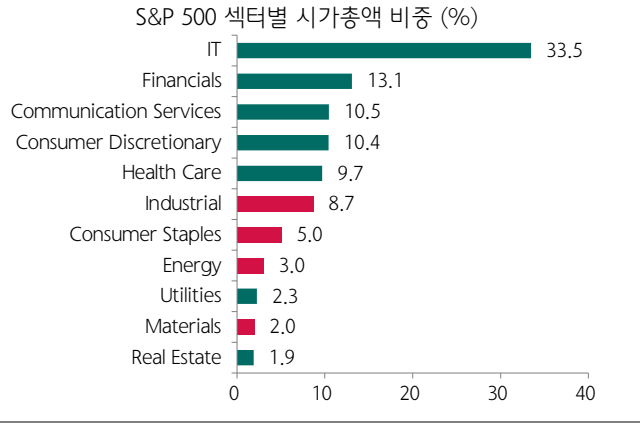
에너지는 미국 에너지 기업들의 세계 1위 석유 매장량을 보유한 베네수엘라 시장 진출 가능성 사업 확장 기회가 열리며 업종 기대감을 끌어올렸고, 특히 관련 CAPEX 투자 증가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시추 및 정제 서비스와 장비 기업이 가장 큰 성과를 올렸다.

도표 17. 에너지, 소재, 필수소비재, 산업재는 지수 대비 크게 아웃퍼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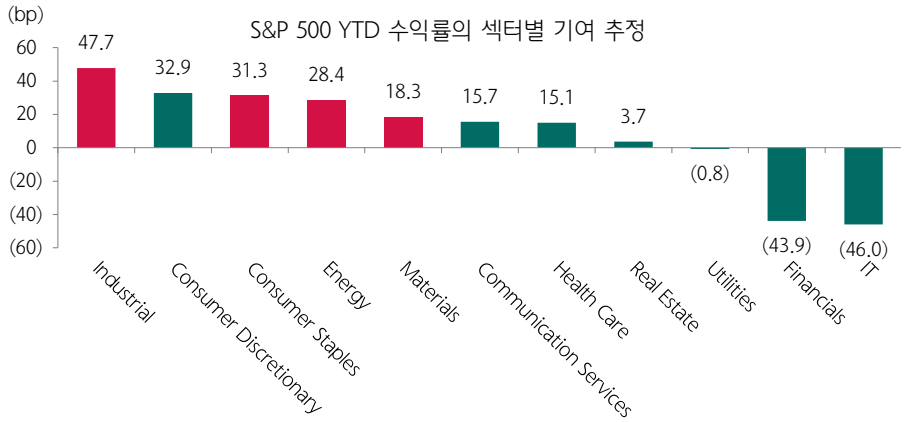
자료: LSEG Datastream, 하나증권

도표 18. 이들 업종은 S&P 500 내 영향력이 크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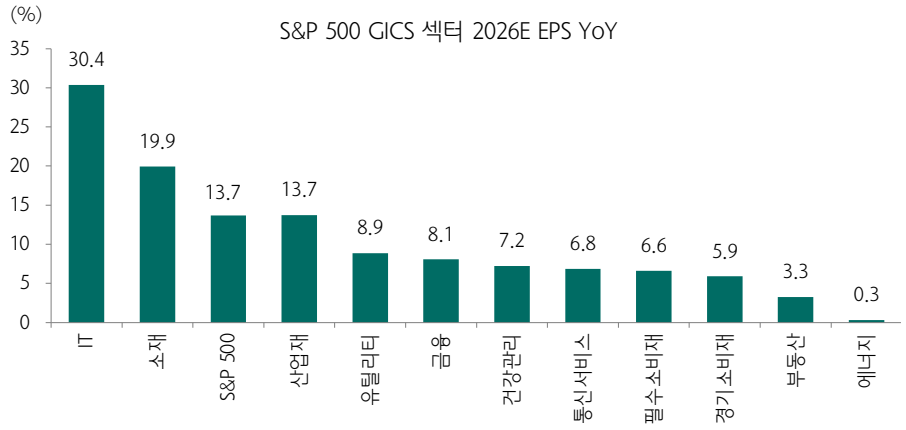
자료: LSEG Datastream, 하나증권

도표 19. 낮은 영향력에도 에너지, 소재, 필수소비재, 산업재 업종이 IT의 성과 부진을 상쇄



자료: LSEG Datastream, 하나증권

도표 20. 소재와 산업재는 IT 다음으로 2026년 이익 성장 전망이 큰 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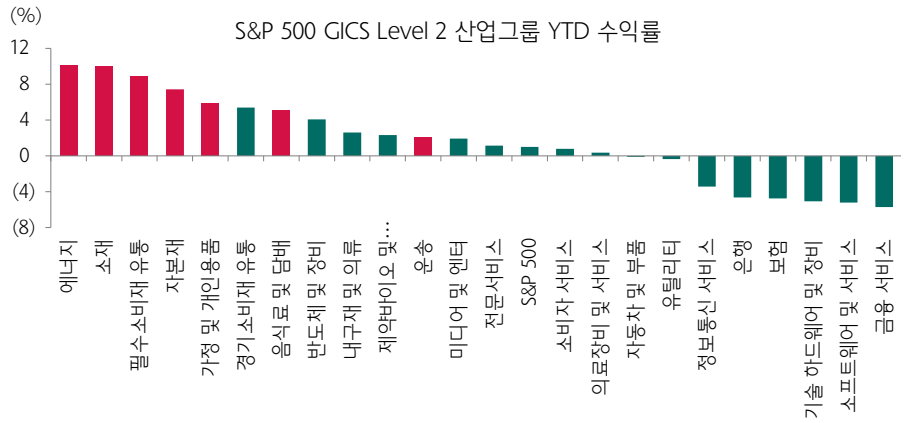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2) 4가지 강세 업종의 세부 산업과 어닝서프라이즈 가능성이 높은 종목 제시

위의 4가지 업종의 세부 산업에서 성과가 우수했던 종목을 꼽자면, **필수소비재 유통**(코스트코, 타겟, 달러제너럴), **소재**(앨버말, 뉴몬트, Dow, 프리포트맥모란), **자본재**(헌팅턴잉걸스, 록히드마틴, L3해리스, 컴포트시스템스USA, 빌더스퍼스트소스, 노스롭그루만), **에너지**(슐럼버거, 할리버튼, 발레로에너지, 엑손모빌, 쉐브론), **음식료 및 담배**(컨스텔레이션브랜즈, 몬델리즈인터내셔널, 필립모리스), **가정 및 개인용품**(에스티로더, 처치&드와이트, 콜게이트팜올리브), **운송**(올드도미니언프레이트라인, CH로빈슨월드와이드, UPS)이다.

도표 21. 증시 상승을 주도한 에너지, 소재, 필수소비재, 산업재 업종의 세부 산업



주: 부동산 업종 제외, 붉은 막대는 위 4가지 업종의 세부 산업
자료: LSEG Datastream, 하나증권

연초 강세 업종 내에서 어닝서프라이즈 가능성이 높은 종목 제시

첫번째 단락에서 언급했듯, 2025년 4분기는 과거의 하향 조정 경향과 달리 분기 중 실적 상향이 두드러졌던 분기였다. 비슷한 상황이 3분기 실적에서도 나타났고, 지수는 3분기도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하는 실적을 달성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면 이번 분기 실적 발표도 종목 전반에서의 어닝서프라이즈 또는 컨센서스 상회의 가능성도 여타 분기와 달리 높아진다는 판단이다. 그리고 3분기 실적 발표 다음날의 주가반응이 좋았던 점 또한 고려하면 더 높은 Hit Ratio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1) 3분기 컨센서스 상회에 따른 주가 반응 호조와 2) 컨센서스 상회의 강한 시그널인 실적 발표 직전의 추정치 상향(YTD FQ1 EPS 컨센서스 상향)을 고려해, 이번 실적 시즌 성과가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군을 3) 산업재, 필수소비재, 에너지, 소재 업종 내에서 선별하여 제시한다.

도표 22. YTD 성과가 좋은 업종에서 3분기 컨센서스 상회에 따른 주가 반응 호조 및 실적 발표 전 추정치 상향을 고려한 종목군

종목	세부 산업	티커	시가총액 (USD mn)	P/E (12M Fwd., 배)	YTD FQ1 변화율(%)	3분기 실적 컨센서스 상회(%)	이후 주가반응(%)
익스피다이터스	운송	EXPD	21,337	26.55	3.39	17.03	10.84
달러 제너럴	필수소비재 유통	DG	32,340	20.73	0.69	37.99	14.01
발레로 에너지	에너지	VLO	57,064	15.25	2.17	19.87	6.96
헌팅턴 잉걸스 인더스트리즈	자본재	HII	16,426	23.90	1.51	8.82	6.92
UPS	운송	UPS	91,609	15.04	0.56	31.71	8.00
캐터필러	자본재	CAT	293,245	27.38	0.34	9.64	11.63
존슨 콘트롤즈 인터내셔널	자본재	JCI	69,525	23.42	0.37	5.21	8.84
몬스터 베버리지	음식료 및 담배	MNST	80,116	36.00	1.56	10.90	5.16
인터내셔널 플레이버스 & 프레그	소재	IFF	18,754	16.34	1.81	3.50	4.08
커민스	자본재	CMI	78,926	21.53	0.70	18.83	5.38
아메텍	자본재	AME	50,815	27.49	0.23	7.46	7.67
도버	자본재	DOV	28,351	19.54	0.15	4.57	8.12
에어 프로덕츠 앤드 케미컬스	소재	APD	58,174	19.68	0.09	0.33	8.94
파커-하니핀	자본재	PH	117,100	28.99	0.11	9.03	7.75
달러 트리	필수소비재 유통	DLTR	25,636	19.34	0.71	9.88	3.61
에이버리 데니슨	소재	AVY	14,487	18.02	0.01	1.64	9.48
허벨	자본재	HUBB	25,803	24.39	0.18	3.85	4.92
RTX	자본재	RTX	262,697	29.03	0.02	20.33	7.67
컴포트 시스템스 유에스에이	자본재	FIX	39,555	36.23	0.00	32.40	18.99
월마트	필수소비재 유통	WMT	938,328	39.57	0.06	3.19	6.46
코카콜라	음식료 및 담배	KO	313,501	22.53	0.18	4.93	4.06
옥시덴털 페트롤리움	에너지	OXY	43,448	38.45	4.97	31.55	0.12
트랜스다임 그룹	자본재	TDG	80,117	34.25	0.70	7.75	1.08
익스팬드 에너지	에너지	EXE	26,077	12.29	4.23	22.99	-0.58
CH 로빈슨 월드와이드	운송	CHRW	20,870	29.20	-0.18	7.42	19.71
에스티 로더	가정 및 개인용품	EL	42,411	44.06	0.48	70.67	0.26
처치 & 드와이트	가정 및 개인용품	CHD	22,195	24.56	-0.03	10.13	7.20
WW 그레인저	자본재	GWW	50,301	23.47	0.11	2.63	2.38
펩시코	음식료 및 담배	PEP	197,690	17.21	0.00	0.49	4.23
포티브	자본재	FTV	17,338	18.38	0.01	19.16	2.40
아이덱스	자본재	IEX	14,616	23.10	0.00	5.14	3.86
호멜 푸즈	음식료 및 담배	HRL	13,533	16.71	0.00	5.88	3.82
얼리지언	자본재	ALLE	14,350	18.30	0.88	4.29	-2.44
스냅온	자본재	SNA	19,196	17.68	0.00	8.19	3.48
트레인 테크놀로지스	자본재	TT	85,640	26.02	-0.07	2.84	4.42
허쉬	음식료 및 담배	HSY	38,773	28.08	0.76	22.28	-2.35
켄뷰	가정 및 개인용품	KVUE	34,105	15.93	-0.69	6.52	12.32
하우멧 에어로스페이스	자본재	HWM	86,399	48.91	0.28	4.81	-0.84
노스롭 그루만	자본재	NOC	96,043	22.58	0.17	18.56	-0.44
제너럴 다이내믹스	자본재	GD	98,127	20.73	0.00	4.62	2.71
셔윈-윌리엄즈	소재	SHW	86,396	27.74	-0.23	4.23	5.47
펜테어	자본재	PNR	17,600	19.38	0.09	5.68	-0.26
큐리그 닥터 페퍼	음식료 및 담배	KDP	37,714	12.99	-0.63	0.23	7.62
Corteva Inc	소재	CTVA	48,972	18.70	0.00	54.32	1.87
올드 도미니언 프레이트 라인	운송	ODFL	36,446	33.29	0.04	4.92	0.03
로크웰 오토메이션	자본재	ROK	46,979	32.22	-0.10	14.17	2.73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